

## 장애인 독서환경 개선 방안 I : (독서)장애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실태 분석\*

이 해 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 성 애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김 정 현

대구대학교 강사

###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 독서 환경 개선 방안” 연구의 기초 연구로써 (독서)장애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고령자 179명과 (시각)장애인 126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첫째, 고령자 독서 실태에서 고령자들은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으며, 주당 평균 4편, 4시간 정도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서를 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은 확대경과 시설 이용 등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독서 실태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주당 3회에 5시간 정도 독서를 하며, 주로 소설이나 시 등과 같은 문학작품을 읽고 있다. 독서를 하는데 있어 점자책의 종류가 한정돼 있는 이유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녹음도서 및 점자도서의 보급·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실태에 서 시각장애인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며, 도서관의 자료 비치정도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며, 전자도서의 대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부족, 다양한 형식의 도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독서)장애인, 독서 실태,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뉴미디어의 대두로 조성되는 다매체경

\* 본 연구는 “장애인 독서환경 개선 방안 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06)”의 내용을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gyunlee@daegu.ac.kr)

쟁상황에서 현대인들에게 독서 환경은 중요하다. 더욱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각종 도구나 다양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독서 환경이 일반인보다 교육, 재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와 노령화 등의 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인쇄매체에 대해 읽기에 어려움을 갖는 모든 사람들을 이른바 ‘독서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인구 10명 중 1명인 400여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caritas.or.kr/v2/gnuboard4/bbs/tb.php/pds005/14>).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독서 장애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념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독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비 및 매체 개발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독서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전체 인구의 9.5%에 달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7.6%로 2010년에는 10.7%, 2020년에는 15.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독서 장애인도 그 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일반인의 독서 환경은 1996년 이후 10년간 국내 출판물 발행부수는 약 25% 감소, PC방 22,000개, 서점 약 2,000개, 초·중·고등학생들의 주말 게임시간 210분, 주말 독서시간 49분(2004년 기준), 초·중·고등학생들의 한 학기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비율, 즉 독서율이 1994년 98%에서 2004년 89%로 점차 감소(<http://blog.naver.com/uzas/29121040>)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서 실태를 보여 주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독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더욱 확연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의 바닥권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 보유 실태나 OECD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성인 독서시간 등을 볼 때, OECD 가입국 중, 문식해독력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22개국 중, 가장 하위 국가로 국민의 75% 이상이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없을 정도이다.

1999년 국제도서관연맹(IFLA)에서 발표한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중에는 ‘도서관들은 모든 이용자들이 자료와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인종, 성별, 나이 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전재봉, 2002). 이 문구는 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강조한 것이며, ‘모든 이용자들’이라는 문구에는 장애인도 분명히 포함이 된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이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잠재 이용자들이 도서관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접근에 제한이 생긴다면 도서관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검색하거나 찾아보는 등의 지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나 제도 등의 미비로 인해 일반인들에 비해 심각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서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처럼 일반적인 인쇄물을 읽는다거나 일반적인 정보에 접근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에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정보에 대한 격차를 해소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독서 장애인이란 개념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독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 또한 전무하다. 그리고 현재 독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정부의 보조 없이는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음성도서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래에는 누구라도 독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많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책을 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독서 환경이 이루어 졌을 때,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것과 이러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은 다르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독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서 음성 도서 및 확대도서 등의 자료를 비치하거나 이들 자료의 일정량을 국가에서 구입해서 복지 기관에 배부하고 있으며 재가 노인은 물론 요양소와 연계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장애인의 독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도서관 관련 기관이 독서 장애인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의 정보 요구에 대한 각종 특수 매체의 제작과 디지털 정보 자료의 확충 그리고 전자 정보의 멀티미디어화 등 국가 정보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장애인 정보 서비스 추진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독서 환경의 개선 방안을 위해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문화 소외 계층의 독서 실태 및 독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범국가적 장애인 독서진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장애인의 독서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 II. 연구의 배경

### 1. 독서 장애인의 이해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봉사를 시작으로 점차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그 범주나 영역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독서 장애인에 대해 개념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특수 자료에 대한 예외 조항에서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정병국, 2004)을 시각장애인 등으로 정의하고 시행령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류하는 시각장애인 5급까지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서 장애인을 'print disabled people' 또는 'people with print disabilities'라고 한다. 또한 미국국립맹인 및 신체장애인도서관(NLS; 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에서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을 시력 측정결과에 관계없이 시력 교정을 받은 이후에도 시각적 장애가 표준 인쇄물을 읽는 것을 저해한다고 해당 전문기관에 의해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의 결과로 표준 인쇄물을 읽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해당 전문기관에 의해 판정된 사람과 신체 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독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여 일상적으로 인쇄물을 읽을 수 없다고 해당 전문기관에 의해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대상은 표준 인쇄물 읽는 것이 어려운 사람과 확대자료나 점역 또는 녹음자료 등만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비디오 등의 화면에 수화나 자막을 처리한 자료만이 이용 가능한 사람을 말하며, 이외의 문자 인식이 어려운 사람과 신체, 학습, 지적, 정신장애자와 노령자 등을 포함한 독서 불가능한 정보장애자를 말한다.

따라서 독서 장애인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도서관에서 자료와 시설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령인 등을 총칭한다고 정의 할 수 있다.

독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결과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5년마다 발간하는 장애인 실태 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장애유형별 출현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현율도 증가하며 이들 장애는 대체로 50세 이후부터 장애 출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정신지체와 언어장애의 경우는 연령 증가에 따라 동일한 증가 경향을 보이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05년의 장애인 실태 조사서에 나타난 주요 장애 유형별 출현율과 장애인 수는 표 II-1과 같다.

표 II-1에서와 같이, 현재 15개 법정 장애 중 10개의 주요 장애의 유형별 출현율과 장애인 수는 지체장애가 99만6천674명에 출현율은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뇌병변장애로서 26만6천70명으로 출현율은 0.57%이었으며, 이는 인구 백명당 0.57명의 뇌병변장애인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이 청각장애인으로 22만7천849명, 시각장애인이 21만9천55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우리나라 15개 장애 유형별 전체 장애인 수는 210만1천57명으로 나타났다.

<표 II- 1> 주요 장애 유형별 출현율 및 장애인 수 (단위: 명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출현율	2.13	0.57	0.47	0.49	0.04	0.24	0.05	0.17	0.09	0.09
장애인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그리고 독서 장애인에 속하는 노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의 근대적인 발전에 따른 역작용으로써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통계청(2005)이 조사한 연령 계층별 노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표II-2와 같다.

<표 II- 2> 연령 계층별 노령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고령 인구				구성비		
	총인구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2001	47,354	3,581	2,115	516	7.6	4.5	1.1
2002	47,615	3,779	2,243	551	7.9	4.7	1.2
2003	47,849	3,975	2,372	586	8.3	5.0	1.2
2004	48,082	4,182	2,521	630	8.7	5.2	1.3
2005	48,294	4,383	2,686	678	9.1	5.6	1.4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현재 9.1%로, 이것은 2001년의 통계조사인 7.6%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비율이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된 탓인데,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남성 73.4세, 여성 80.4세로 전체적으로는 77.0세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도 평균 수명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대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수명이 전반적으로 연장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노령화 현상과 자연 환경 파괴 및 산업 재해 등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독서 매체를 읽을 수 없는 독서 장애인의 수는 날로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가는 현상이다.

## 2. (독서)장애인 독서 관련 법규

장애인 독서 환경과 관련한 법규는 장애인복지법,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그리고 저작권법 등이 있다. 이외의 법규 중에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최초로 ‘점자도서관’ 설치 조항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특수교육진흥법이 몇 번 개정을 해 오면서 이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존속해 오다가 1994년 전문개정을 하면서 ‘점자도서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5항)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기관 설립을 의무화하지 않고 임의조항 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다’(동법 제49조)라고 제시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예산 등의 형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이루어지고 있어 다소 문제가 없지 않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중이나 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자료(동법 제5조) 및 사서직원 등(동법 제6조)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동법 제3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 설립하도록 하거나,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재정상 등의 문제로 설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동법 제21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게 도서관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동법시행령 제24조)에 대한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별표1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적합한 공공도서관을 1개 이상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인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경우는 면적이 66㎡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는 면적의 45% 이상이며, 기계·기구의 경우는 점자제판기, 점자인쇄기, 점자타자기 각각 1대 이상, 녹음기 4대 이상 그리고 장서는 1500권 이상이며, 녹음테이프는 500점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서비스 기관인 점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비용의 보조(동법 제72조)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시설의 재정은 영세하여 시설 설비의 기준 확보나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시설의 운영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법률상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조항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녹음 등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 생활시설, 점자도서관,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과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동법 제4조) 등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교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에게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동법 시행령 제3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복제·배포 그리고 녹음이 가능한 시설과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파일 전송에 관한 저작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다양한 범위의 독서장애인 중 독서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첫째, 고령자의 독서 실태 조사를 위해 대도시에 사는 50대 이후의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85부였으며, 이중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모두 279부를 통계처리하였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시각장애학교 및 복지관 그리고 관련 기관의 학생, 교사 등 17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39부였으나 이 중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126부를 통계처리하였다. 각 설문지 별로 그 구체적인 대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Ⅲ-1> 조사 대상자 특성(고령자)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50	53.8
	여	129	46.2
	합계	279	100.0
연령별	50대 이하	55	19.7
	60대	91	32.6
	70대	102	36.6
	80대 이상	31	11.1
	합계	279	100.0
학력별	초졸	40	14.3
	중졸	52	18.6
	고졸	99	35.5
	대졸이상	73	26.2
	기타	15	5.4
	합계	279	100.0

표Ⅲ-1에 의하면 남자는 150명으로 전체의 53.8%에 해당하며, 여자는 129명으로 전체의 46.2%로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많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가 19.7%(N=55), 60대가 32.6%(N=91), 70대가 36.6%(N=102), 80대 이상이 11.1%(N=31)로 70대와 60대가 약 70%를 차지한다.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이 40명(14.3%), 중학교 졸업이 52명(18.6%), 고등학교 졸업이 99명(35.5%), 대학교 졸업 이상이 73명(26.2%), 기타가 15명(5.4%)으로 대부분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



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표Ⅲ-2에 의하면 장애인의 독서 실태에 대해 답한 응답자들은 남자가 82명((65.1%), 여자는 44명(34.9%)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8명(30.2%), 20대 29명(23.0%), 30대 29명(23.0%), 40대 13명(10.3%) 그리고 50대 이상은 17명(13.5%)였다. 학력별 특성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20명(15.9%), 중학교 졸업 22명(17.5%), 고등학교 졸업 38명(30.2%), 대졸 이상 41명(32.5%) 그리고 기타가 5명(4.0%)였다. 응답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이 61명(48.4%), 대학생이 7명(5.6%), 침술·안마 4명(3.2%), 회사원 14명(11.1%), 전문직 14명(11.1%), 가사 2명(1.6%), 기타 24명(19.0%)이었다. 마지막으로 시력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저시력인 경우가 52명으로 전체의 41.3%였으며, 맹은 전체의 58.7%에 해당하는 74명이었다.

<표Ⅲ-2> 조사 대상자 특성(시각장애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82	65.1
	여자	44	34.9
	합계	126	100.0
연령별	10대	38	30.2
	20대	29	23.0
	30대	29	23.0
	40대	13	10.3
	50대이상	17	13.5
	합계	126	100.0
직업별	고등학생 이하	61	48.4
	대학생	7	5.6
	침술,안마	4	3.2
	회사원	14	11.1
	전문직	14	11.1
	가사	2	1.6
	기타	24	19.0
	합계	126	100.0
시력정도별	저시력	52	41.3
	맹	74	58.7
	합계	126	100.0

## 2. 조사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로는 2종류의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본 연구의 연구진

이 시각장애인 도서관 및 정보 활용 관련 문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이를 다시 강숙희(2001)의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전재봉(2002)의 ‘장애인에 대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정병국(2004)의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변용찬·김성희·윤상용·최미영·계훈방·권선진·이선우(2005)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비교하여 관련 문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였고, 관련 전문가 3인에게 설문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설문지 및 질문지 종류와 하위 영역

번호	설문 종류	하위 영역별 주요 내용	문항수
1	고령자용 설문지	배경 변인, 독서 실태, 건의 사항	19
2	시각장애인용 설문지	배경 변인, 독서 실태, 도서관 이용 실태	35

###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령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2006년 11월 3째주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실태는 먼저 관련 기관(시각장애학교, 복지관, 관련 도서관 등)에 전화를 통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6년 11월 2째주에 우편을 발송하여 실시하였다.

### 4. 자료 처리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실태 모두 빈도와 백분율을 기초로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항에 따라 t, F 등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분석할 항목과 변인이 다수여서 각 문항마다 표를 제시하지 않고 문항별로 분석을 하였다. 둘째, 문항별로 분석할 때 가능하면 변인에 따른 차이를 언급하고자 하였으나, 차이가 나지 않은 문항에서는 따로 설명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1. (독서)장애인의 독서 실태

### 1) 고령자의 독서 실태

#### (1) 독서에 대한 취미 정도

고령자들은 독서에 대하여 5점 중 2.53점 수준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 여자가 각각 2.51, 2.55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독서에 대한 관심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8.05$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아서 2.85점이었으며 80대 이상은 1.96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학력에 있어서는 교육 수준의 증가에 따라 독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즉 초등학교 졸업자가 1.9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반면 대졸이상은 2.97점으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학력에 따른 독서에 대한 관심의 평균의 차이는 .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F=10.760$ ). 학력에 따른 일반적인 독서 경향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많은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2) 독서 장소

고령자들의 절대 다수( $N=222$ , 79.6%)가 가정에서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모든 배경변인에 적용되었으며, 독서의 장소로써 가정 다음으로는 기타( $N=21$ , 7.5%), 공공장소( $N=16$ , 5.7%)의 순이었다. 기타가 7.5%로 나타났는데,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설문지에 체크를 해 주거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3) 독서의 내용/종류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은 신문과 잡지( $N=138$ , 49.5%)를 가장 많이 읽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설과 시 등의 문학작품( $N=60$ , 21.5%), 생활정보( $N=39$ , 14.0%)의 순이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변인별(성별, 연령별, 학력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4) 독서량

고령자들은 주당 평균 4.19회( $SD=3.09$ )에 평균 3.93시간( $SD=6.34$ )을 독서에 할애하고 있었다. 여자보다는 남자들의 독서 횟수가 많으나(남  $M=4.31$ ,  $SD=2.71$  / 여  $M=4.05$ ,  $SD=3.50$ ), 독서시간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많았다(남  $M=3.64$ ,  $SD=3.64$  / 여  $M=4.26$ ,  $SD=7.07$ ).

연령별 특성을 보면 독서의 횟수는 50대 이하가 가장 많으며( $M=4.80$ ), 독서 시간은

60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M=4.25).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독서 횟수가 가장 많고(M=4.44), 독서시간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M=4.96)의 경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5) 독서시 어려움 정도

고령자들은 독서를 하는데 있어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즉 전체의 평균이 5점 중 2.44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M=3.32). 연령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14.23).

학력에 따른 독서시의 어려움은 학력이 높을수록 독서시 느끼는 어려움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즉 초등학교 졸업 학력자의 경우 평균은 2.97점이었으나 대졸 이상의 경우는 2.23점이었다. 학력에 따른 평균의 차이 역시 .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7.31).

(6) 어려움의 내용

고령자들이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확대경(N=116)의 문제였다. 그리고 뒤를 이어 기타(N=52), 시설 이용의 문제(N=48) 순이었다.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기타가 N=52로 17.7%로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응답을 기재해 주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 파악은 어려웠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독서시에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요구된다.

(7) 독서에 대한 어려움의 해소책

독서를 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된 해소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많은 응답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안경(돋보기)를 착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간에 휴식을 취해 줌으로써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독서를 하는 것 등이다. 예를 들어 책을 읽어 주는 청독서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한 체계화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8) 독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요구사항

독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요구사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글자의 크기를 더 확대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여기에 독서를 위해 도서관을 확충하고 조명을 밝게 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응답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고령자가 책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조명시설

이 잘 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확대된 도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CCTV, 확대경 등과 같은 저시력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요구된다.

(9) 도서관 이용 정도

실질적으로 고령자들은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할까? “귀하께서는 독서를 위해 도서관을 어느 정도 자주 이용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통해 이를 파악하였다.

남자들은 한달 평균 1.59회를 그리고 여자들은 한달 평균 1.39회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횟수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50대 이하의 평균은 월 3.09회, 60대 월 1.37회, 70대 월 1.19회, 80대 이상은 월 .09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가 월 2.67회로 가장 많은 이용 정도를 보였다.

(10)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시설은 공공 도서관(N=52, 56.5%)이며, 다음은 마을 도서관(N=18, 19.6%), 학교 도서관(N=13, 14.1%) 등의 순이었다. 특히 80대 이상인 고령자들은 전적으로 마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마을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마을 도서관에 대한 노인의 접근성 문제라든가, 편의 시설의 설치 등이 요구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11) 도서관 이용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의 평균이 5점 중 2.80점으로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은 60대(M=2.16), 50대 이하(M=2.09)의 순이었다. 연령에 따른 불편함의 인식 정도는 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4.79). 성별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도 각 집단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었으나 그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2) 도서관 이용시 불편한 사항

고령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 느끼는 불편 사항은 기타(N=70, 25.1%), 시설이용(N=63, 22.6%), 목록찾기(N=55, 19.7%)의 순이었다. 기타가 63명(22.6%)로 나타난 것은 예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느끼는 도서관 이용의 불편 사항 이외에 또 다른 많은 변인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50대 이하(N=13, 23.6%), 60대(N=24, 26.4%), 초졸(N=12, 30.0%), 고졸(N=25, 25.3%)은 시설이용이 가장 불편하다고 했으며, 대졸이상인 경우는 목록찾기(N=18, 24.7%)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특히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서적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록 찾기가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즉 정보화로 인하여 컴

퓨터의 활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목록 찾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하여 쉬운 목록 찾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요구된다.

(13) 도서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노력

고령자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1.96)(5점 만점). 5%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연령의 경우(F=2.71), 70대의 노력이 가장 적었으며(M=1.81) 80대 이상(M=2.32)이 가장 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0대가 독서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만큼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14) 불편한 점 해소 방법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고령자들은 담당 직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도서관의 대안으로 이동 도서관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일반적인 태도는 불편함을 경험하더라도 그냥 놔둔다거나 이후 가정에서 독서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비하여 노인에 대한 독서문제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5) 도서관 직원들의 고령자 독서에 대한 인식 수준

“도서관 직원들의 고령자 독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고령자들이 인식을 파악하였다.

고령자들의 도서관 직원에 대한 평가는 보통 수준(M=2.62)(5점 만점)이었다. 특히 연령에 있어서는 5%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19). 도서관 직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인 집단은 60대로 가장 낮은 2.49점이었으며, 8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2.9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16) 도서관 이용을 위해 요구할 점

도서관 이용을 위해 요구 할 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유목화시켜 볼 수 있다. 즉 고령자를 위한 노년 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할 것, 많은 책을 구비할 것, 글씨를 크게 해줄 것, 거주지에 근접한 도서관을 건립할 것, 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 냉난방 시설 보완, 직원들의 친절, 편안하고 깨끗한 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독서 그 자체 문제만큼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7) 고령자 독서 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해 관계 당국에 바라는 내용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해 관계 당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 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고령자를 위한 도서관 층축, 이동도서관 증대, 도서의 글자크기 확대, 도서관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줄 것, 시설의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전용 시설 및 관련 보조기기 등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각장애인 독서 실태

(1) 독서에 대한 취미 정도

여자(M=3.20)가 남자(M=3.02)에 비해 독서에 대한 취미의 정도가 높았다(5점 만점). 그리고 연령별로는 30대들의 평균(M=3.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20대(M=3.27)였다. 이와 같은 연령에 따른 독서에 대한 취미의 정도는 5%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2.58). 학력별 결과를 보면 기타(M=4.00), 대졸 이상(M=3.53), 고졸(M=2.94)의 순이었으며, 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냈다(F=5.23). 직업별로는 대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가장 높은 평균인 4.00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전문직(M=3.64), 회사원(M=3.42)의 순이었으며 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 독서 장소

시각장애인들의 주된 독서 장소는 주로 가정(N=89, 70.6%)이며, 다음은 도서관(N=18, 14.3%), 기타(N=14, 11.1%)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자 응답자의 79.3%에 해당하는 65명 그리고 여자 응답자의 54.5%인 24명이 가정에서 독서를 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대학생(N=7), 회사원(N=14), 전업주부(N=2) 등의 경우는 응답자 전원이 가정에서만 독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에서 주로 독서를 하는 이유에 대한 추가 질문에 있어서는 집에서 읽을 도서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며 또한 도서관에 가봐야 본인이 읽을 만큼의 자료가 없거나 혹은 있되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정이나 도서관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3) 독서의 내용과 종류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내용/종류로 독서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읽는 책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소설이나 시 그리고 수필과 같은 문학작품을 읽는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61.1%에 해당하는 77명이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문서적을 읽는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16.7%에 해당하는 21명으로 다음이었으며 이어 기타(N=11, 8.7%)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독서의 종류와 내용은 모

든 배경 변인 즉 성별, 연령별, 학력별에 있어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 (4) 주당 독서의 정도

조사 응답자들은 일주일간 평균 3.29회 정도 책을 읽으며, 대략 5.73시간을 독서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여자 보다 남자가 책을 읽는 횟수와 시간이 많았으며, 50대 이상이 그 이하의 연령층보다도 책을 읽는 횟수와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일주일에 책을 읽는 횟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독서 시간은 반드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의 주당 독서 횟수와 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학생의 주당 독서 횟수와 시간 순이었다. 그리고 저시력 학생보다는 맹학생들이 독서를 자주, 더 많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양의 독서량이라면 저시력 학생 혹은 정안인보다 맹학생의 읽기 속도가 느려서 반대로 시간과 횟수는 더 길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 (5) 독서할 때의 어려움 정도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전체 평균이 5점 중 2.99점(SD=1.16)으로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점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M=4.23)가 독서를 하면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30대(M=3.27), 50대(M=3.17) 이상의 순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령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9.34).

학력에 있어서도 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아서 대졸이상의 평균(M=3.29)이 가장 높고 다음은 고졸(M=3.18)의 순이었다(F=3.12). 이것은 일반 서적은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제공되고 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 서적을 많이 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읽을 수 있는 도서가 부족한 이유도 찾아 볼 수 있다.

#### (6) 독서할 때의 어려움

독서를 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점자책의 종류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N=78). 그리고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따른 문제(N=38), 독서 관련 시설 이용문제(N=13.2) 등의 순이었다. 이 중에서 점자책의 부족 문제와 컴퓨터의 이용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어려움들이다.

#### (7) 독서의 어려움 해소책

독서의 어려움 해소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유목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즉 점자 읽기, 한소네 사용, 대독 서비스 이용하기, 각종 정보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사용, 휴식하면서 독서하기, 가족, 자원봉사, 도서관 직원 등 타인의 도움 구하기, 밝은 조명 시설 갖추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특히 대독서비스, 한소네 등과 같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독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요구사항

독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즉 신간 도서의 신속한 제작, 한소네의 무료 증정, 녹음도서의 보급, 서적을 전산 파일(전자도서)로 판매, 독서 도우미 지원, 자원봉사자 증원, 컴퓨터 활용교육의 활성화, 점자도서의 확충, 확대독서기 보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간도서의 신속한 제작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반 서점에 목자책이 나오게 되면 시각장애인도 동시에 점자도서, 녹음도서, 전자도서 등의 형태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으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며 살아가기가 용이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주로 보조공학 기기를 활용한 독서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보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 (9) 독서 목적의 도서관 이용 정도

독서를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정도를 한 달을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한 달에 평균 4.15회 독서를 목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를 목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평균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은 경우를 배경 변인별로 보면 여자(M=4.52), 10대(M=5.02), 초등학교 졸업자(M=6.55), 회사원(M=6.21), 저시력(M=4.34)의 경우였다. 그러나 각 변인별(성별, 연령별, 직업별, 시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10) 이용하는 도서관의 종류

“귀하께서는 독서를 위해 주로 어떤 도서관을 이용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도서관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응답자들이 독서를 위해 가장 많이 찾는 도서관은 시각장애 관련 도서관으로 전체의 43.7%에 해당하는 55명이 답하였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40명(31.7%)으로 다음이었다.

남자들이 시각장애 관련 도서관(N=44, 53.7%)을 주로 찾는데 반해 여자들은 학교 도서관(N=20, 45.5%)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10대들이 많은 경우 학교도서관(N=29, 76.3%)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아직 학생이기에 다니고 있는 도서관 이용

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운 학교 도서관의 환경이나 도서 구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 수준이 높은 고졸(N=26, 68.4%)과 대졸 이상(N=18, 43.9%)의 경우는 시각장애 관련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도서관에는 일반서적 위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 주로 시각장애인 관련 도서관에 점역이나 녹음 혹은 점자도서 제작을 의뢰하여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력정도에 따라서도 이용하는 도서관의 형태에 차이를 보였는데 저시력인 경우는 학교도서관(N=18, 34.6%)을 그리고 맹인 경우는 시각장애 관련 도서관(N=38, 51.4%)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저시력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CCTV 혹은 기타 저시력 기구들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11) 도서관 이용시 불편 정도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07점으로 응답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별 특성에 있어 40대(M=4.00) 응답자들이 불편함이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불편함에 대한 인식 정도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와 같은 연령에 따른 도서관 이용시 불편의 정도는 .1%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11.35).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불편함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졸이상의 평균이 3.75점(SD=1.22)으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졸업자의 평균이 1.95점(SD=.99)으로 가장 낮다. 그리고 학력에 따른 평균의 차이 역시 .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 도서관 이용시 불편사항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귀하께서 도서관을 이용시 어떤 점이 불편합니까?”라는 질문에 답하게 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가장 큰 불편함은 점자 및 녹음도서 등이 없다(N=37, 29.4%) 다음은 목록 찾기(N=33, 26.2%), 이동(N=20, 15.9%)의 순이었다. 연령이 50대(N=9, 52.9%) 그리고 고졸(N=12, 31.6%)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침술 혹은 안마를 직업으로 하는 경우는 보조공학 시설의 부족(N=2, 50.0%)을 가장 큰 불편함으로 지적하였다. 즉 필요한 도서가 다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불편한 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도서관에서는 가능하면 폭넓은 자료를 구비하여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13) 도서관 직원들의 장애인 독서에 대한 인식 수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도서관 직원들의 장애인 독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보통을 조금 넘는 정도(M=2.70)였다(5점 만점). 여자(M=2.95)가 남자(M=2.57)보다 도서관 직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M=3.17)이 도서관 직원들에 대해 가장 호의적이었으며,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M=3.00)들의 다른 집단에 비해 도서관 직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가사에 종사하는 집단(M=3.50) 그리고 맹(M=2.83)의 경우가 도서관 직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2) 시각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이용 실태

(1) 도서관 이용

① 도서관 이용 여부

도서관 이용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9.8%에 해당하는 88명이었으며,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0.2%인 38명이었다. 도서관 이용자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② 도서관 이용 이유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답한 88명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를 파악한 결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N=37, 42.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이 여가활용을 위해(N=26, 29.5%), 특기 및 취미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N=21, 23.9%)의 순이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38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적인 이유(N=12, 34.2%)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뒤이어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서(N=13, 34.2%), 본인에게 부적합하기 때문에(N=6, 15.8%)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음이었다.

남자의 경우는 거리적인 이유에서(N=9, 40.9%), 여자는 이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N=7, 43.8%)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본인에 부적합하다는 답변이 각각 44.4%(N=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저시력자들은 이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N=6, 42.9%) 그리고 맹들은 거리적인 이유에서(N=8, 33.3%)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도서관 이용 방법

응답자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독서를 한다고 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44.4%에 이르는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은 직접 방문하여 독서를 하는 경우로 전체의 24.6%인 31명이 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우편배달을 통한 관외 대출의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N=28, 22.2%). 이 설문결과를 통해 자료의 DB화 및 전자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10대(N=20, 52.6%), 초등학교 졸업(N=14, 70.0%), 고등학생 이하(N=25, 41.0%), 침술과 안마의 직업을 갖고 있는 자(N=2, 50.0%), 저시력자(N=19, 36.5%)인 응답자들은 직접 방문의 방법을 도서관 이용의 주된 방법으로 삼고 있었다. 또한 50대 이상(N=13, 76.5%), 가사일(N=1, 50.0%)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우편을 이용한 관외 대출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⑤ 도서관 이용 횟수

도서관 이용 횟수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N=62, 49.2%)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 정도(N=22, 17.5%) 도서관을 이용한다, 반년에 한 번(N=16, 12.7%) 이용한다가 그 뒤를 이었다.

⑥ 도서관 활용 이유

도서관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점자, 녹음, 전자도서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N=43, 34.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용이 편리해서란 답변이 전체의 24.6%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으며, 자료가 많아서(N=21, 16.7%)란 답변이 다음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자료의 제공이 시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료 이용

① 도서의 종류

주로 이용하는 도서의 종류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전자도서가 가장 많은 36.5%(N=46)이었으며, 다음은 점자도서 29명(23.0%), 녹음도서 20명(N=15.9%)의 순이었다. 남자들이 전자도서(N=32, 39.0%)를 선호하는데 반해 여자들은 점자도서(N=15, 34.1%)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대들은 점자도서(N=20, 52.6%)를 50대 이상은 녹음도서(N=12, 70.6%)의 이용 정도가 높았다. 학력이 고졸인 경우는 녹음도서(N=11, 28.9), 대졸 이상은 전자도서(N=27, 65.9%)를 이용한다는 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연령대별, 학력별 선호하는 도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구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② 도서관 자료 비치 정도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의 자료는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도서관의 자료 비치 정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원하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N=49, 38.9)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27.8%인 35명이었으며, 원하는 자료가 조금부족하다는 경우도 전체의 22.2%인 28명이 답하였다. 이 설문은 토대로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평균 도서 대출 정도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한 달간 대출하는 도서는 평균 2.85권 정도였다. 남자(M=2.81)보다는 여자(M=2.93)들이 대출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50대(M=4.29)가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대출 이상이 대출하는 평균(M=2.70)보다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자들의 대출정도(M=3.20)가 높았다 그리고 침술, 안마업에 종사(M=3.75)하는 이들의 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 정도에 있어서는 맹(M=2.89)인 경우가 저시력(M=2.80)인 경우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였다.

(3) 문제 해결

① 불편함에 대한 해결 요청 횟수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함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는 전체의 29.4%(N=37) 수준에 그쳤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불편하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89, 70.6%).

그리고 불편함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는 평균 2.39회 수준이었다. 여자(M=1.90) 보다는 남자들(M=2.57)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으며, 40대(M=3.00), 고졸(M=2.85), 침술·안마업 종사자(M=3.00), 그리고 저시력(M=2.57)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청 제안을 많이 하였다.

② 건의 방법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타, 직접방문, 전화의 방법 순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즉 기타는 43.7%(N=55), 직접방문 31.7%(N=40) 그리고 전화 23.8%(N=30)의 순이었다. 기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해 주지 않아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초등학교 학력(N=13, 65.0%), 침술·안마 종사자(N=2, 50.0%), 저시력은 직접 방문(N=21, 40.4%)의 방법을 이용하며, 50대 이상은 전화(N=9, 52.9%)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③ 도서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도서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자(M=3.41)가 여자(M=2.70)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성별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p < .01$ ,  $t=3.50$ )(5점 만점).

그리고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만족도의 정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10대의 만족도(M=2.57)가 가장 낮고 40대의 만족도(M=4.53)가 가장 높다. 연령에 따른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는 .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F=8.77$ ). 학력이 증가할수록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초등학교 졸업자의 만족도는 2.10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졸 이상은 3.43점으로 가장 높다. 이와 같이 학력에 따른 도서관 이용 만족도는 .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F=6.41$ ).

④ 불만족의 종류

도서관 이용시에 만족스럽지 못한 종류(중복응답)를 정리한 것이다.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은 자료가 부족(N=89)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다양한 형식의 도서가 없다는 점(N=73), 전자도서의 수가 부족한 점(N=45) 등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컸다.

⑤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요구사항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모두 고르도록 한 결과는 표와 같다(중복응답). 이에 의하면 자료의 양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바램이 가장 컸으며(N=102), 다음은 신간 안내 및 각종 신종정보 보급(N=39), 전자 도서의 양을 늘릴 것(N=47) 등의 순이었다.

⑥ 요구사항 처리 만족도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배경변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족도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3.30점으로 보통을 넘는 수준이었다(5점 만점).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만족도 수준은 3.92점으로 가장 높으며 10대의 만족도는 3.07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요구 사항 처리 만족도는 1%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F=4.09$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만족도(M=3.53)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학교 졸업자들의 만족도였다. 학력에 따른 만족도(M=3.40)의 차이는 5%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F=3.44$ ). 여자(M=3.22)보다는 남자(M=3.35), 맹(M=3.28)보다는 저시력(M=3.34)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아니었다.

⑦ 도서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인 2.73점이었다(5점 만점). 남자(M=2.59)보다는 여자(M=3.00)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5%의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t=-2.05$ ). 성별을 제외한 연령, 학력, 직업 그리고 시력정도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⑧ 개발되어야 할 프로그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발되어야 할 프로그램은?”이란 문항을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그 요구를 알아보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은 예능 및 스포츠 프로그램(N=36, 28.6%)이었으며 다음은 건강관리(N=34, 27.0%), 복지 시설 및 제도(N=24, 19.0%)의 순이었다.

## V. 결론

### 1.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독서 환경 개선 방안 연구의 기초 연구로써 (독서)장애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독서 실태에서 고령자들은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관심도 역시 감소하였다. 또한 많은 고령자들이 가정에서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문학 작품 등을 주 당 평균 4편, 4시간 정도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를 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은 확대경과 시설 이용 등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고령자들은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이나 마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은 시설이용이나 목록찾기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의 독서 실태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주당 3회에 5시간 정도를 독

서하는데 보내고 있었으며, 주로 소설이나 시 등과 같은 문학작품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를 하는데 있어 점자책의 종류가 한정돼 있는 이유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녹음도서 및 점자도서의 보급·확대를 희망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독서를 목적으로 한 달 평균 4회 정도 시각장애 관련 도서관을 중심으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점자 및 녹음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많이 인식하여 점자 및 전자도서 등을 많이 구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독서 증진을 위해 전자도서칩의 개발, 국립점자인쇄소의 설립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실태에서 시각장애인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며, 도서관의 자료 비치정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부족, 다양한 형식의 도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강숙희(2001).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229-256.
- 전재봉(2002). 장애인에 대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3(4), 157-173.
- 정병국(2004).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최미영, 계훈방, 권선진, 이선우(2005).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5). 2005년 전국 장애인 등록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 통계청(2005). 장애인구특별 추계.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04). 2002년 생명표 작성결과. 통계청.



## Methods to Improve Reading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Lee, Hae Gyun**

Daegu University

**Kim, Sung Aa**

Daegu University

**Kim, Jung Hyun**

Daegu University

### <Abstract>

This research, a basic research on "Methods to Improve Reading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analyzed the conditions of the print disabled people' reading and library using.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on 179 aged individuals and 126 visual disabled individuals, and as a result, first off, regarding the aged individuals reading conditions, the interest of the aged in reading were not high, showing a survey result of reading average 4 articles a week for 4 hours, though not having significant inconvenience for reading. Nevertheless, the aged were feeling much inconvenience in using magnifying glasses and the facilities. As for the reading conditions of the visual disabled, the visual disabled reads about three times a week for 4 hours, reading mostly literature pieces like novels or poems, etc. Since their readings are limited to braille books, they feel inconvenience and hope supply and reinforcement of audio books and braille books to solve such problems. Secondly, regarding the library services using conditions of the visual disabled, the disabled are using library to acquire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but are not satisfied with the data facilitated in the library, while much of their loans are taken from electronic books. Though the overall satisfaction degree with the library is high, it is shown that still dissatisfaction lingers in that the data are insufficient and the books are not diverse in categories.

**key words** : The disabled, reading environment

---

논문 접수: 2007. 4. 27    심사 시작: 2007. 5. 10    게재 확정: 2007. 9. 26